시민 위한 다양한 공연·콘텐츠 제공

익산예술의전당,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공모 5개 사업 선정 국비 3억원 확보

익산예술의전당이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한문연) 공모 사업'에 선정돼 시민들에게 보다 다채로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예술의전당은 한문연 공모 사업에서 총 5개 분야가 선정돼 3억원 가량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된 사업으로는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에 '우수공연 프로그램'과 '문예회관, 예술단체 공연콘텐츠 공동제작·배급 프로그램' ▲지역문화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 사업 ▲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 ▲전시해설 인력 지원 사업 등으로 총 2억 9,883만원의 국비를 확보하게 됐다.

우선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우수공연프로그램'은 '뮤지컬 여명의 눈동자', '클림트&뮤직 콘서트', '연극 숙희책방'이 선정돼 시민들에게 다양한 공연콘텐츠를 제공하며 지역문화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한문연의 신규 사업인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문예회관, 예술단체 공연콘텐츠 공동제작·배급 프로그램' 사업은 안동문화예술의전당을 대표 기관으로 익산예술의전당과 안성맞춤아트홀이 협업하는 사업이다.

전당은 고(故) 이영훈 작곡가의 클래식 소품을 중심으로 하는 음악 콘텐츠를 제작 중이며 해당 사업을 통해 문예회관의 공연 제작·배급의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역문화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은 '일상에 예술을 더하다'라는 사업명으로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솜리문화예술회관 중공연장에서 총 6회의 공연을 펼치게 된다.

또한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는 전시공간 활성화 사업을 통해 테리보더의 '먹고, 즐기고, 사랑하라'展이 선정돼 관람객의 미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미술 전시에 보다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사업으로 전시공간의 가동률을 높이고 지역주민들의 전시 관람 기회를 확대하며 시각예술 분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술교육 분야는 '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에서 지난해 진행했던 '줌마리나 아재리노 발레 해보기'가 재선정되는 등 중장년을 위한 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선보일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전시해설 인력 지원 사업 선정으로 전문 전시 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시민들의 우울감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하고 수준 높은 공연·전시 관람으로 일상의 피로를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좌석간 거리두기와 공연장 방역 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로 안전한 관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정읍시 수제천보존회는 지난 10일 정읍의 새로운 랜드마크 ㄷ·ㄹ하다리에서 2021년 수제천 신춘음악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ㄷ·ㄹ하다리서 첫 수제천 공연 성료

정읍시 수제천보존회, 신춘음악회 야외 버스킹 공연으로 진행

정읍시 수제천보존회(이사장 이영자)는 지난 10일 정읍의 새로운 랜드마크 ㄷ·ㄹ하다리에서 2021년 수제천 신춘음악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공연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시민들의 지친 심신을 위로해주고 문화적 감수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기획됐다.

공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야외 버스킹 공연으로 진행됐으며,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관람명부를 작성하고 발열 증상을 확인하는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했다.

공연에는 유진섭 시장과 조상중 정읍시의회의장 가족 단위 관람객, 천변에 운동을 나온 시민 등이 참석해 아름답고 장중한 수제천의 선율을 감상했다.

특히, 벚꽃잎이 흩날리는 봄날 저녁 ㄷ·ㄹ하다리 주위가 어두워지면서 화려한 조명이 수제천의 선율과 함께 관객들을 매료시켰다.

유진섭 시장은 "정읍의 새로운 랜드마크 ㄷ·ㄹ하다리에서 열리는 첫 수제천 공연으로 의미있는 자리가 됐다"며 "앞으로 시민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킬 만한 다채로운 공연을 통해 역사를 간직한 문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제천은 정읍이라는 지역명을 가진 유일한 전통 기악곡으로 수명이 하늘처럼 영원하기를 기원하는 의미로 궁중 의례와 연향에 사용되고 있다.

수제천보존회는 1996년 수제천 연주 교실을 시작으로 현재 정기연주회와 국제민족음악교류제, 전국 각지 초청공연, 조선왕조실록 포쇄 재현공연, 동학기념제, 정읍사 문화제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빈센트 반고흐 예술의 혼 느껴요"

군산예술의전당, 일대기 담은 창작 뮤지컬 5월 1일 공연

군산예술의전당이 전 세계가 사랑한 태양의 화가 빈센트 반고흐의 일대기를 담은 창작 뮤지컬 '빈센트 반 고흐' 공연을 오는 5월 1일 15시, 19시 2회에 걸쳐 대공연장에서 진행한다.

뮤지컬 '빈센트 반 고흐는 자신의 삶을 바쳐 그림을 그렸던 화가 빈센트 반 고흐와 그런 그를 묵묵히 뒤에서 지원해주었던 동생 테오 반 고흐의 이야기로 3D프로젝션 맵핑을 통해 〈별이 빛나는 밤에〉, 〈해바라기〉, 〈감자 먹는 사람들〉 등 수 많은 명작들을 무대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영상으로 펼쳐내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공연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에 따라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객석제가 적용되며, 기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예술의전당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지친 이때 고난의 삶 속에서 예술의 혼을 불태운 빈센트 반 고흐 흔적을 생생하게 느끼고 그를 추모할 수 있는 작품을 유치해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을 통한 힐링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티켓예매는 티켓링크(www.ticketlink.co.kr)와 현장예매 커피브라운(465-7730)에서 가능하며 R석 3만원 S석 2만원으로 오는 23일까지 20% 할인이 진행된다.

기타 공연에 대한 자세한 사항 및 할인률은 군산예술의전당 홈페이지(www.gunsan.go.kr/art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산=남현봉 기자

익산예술의전당, 하반기 정기대관 접수

익산예술의전당이 올해 하반기(7월~12월) 정기대관 접수를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대관시설은 대공연장(어양동), 중공연장·소공연장·전시실(솜리문화예술회관)이며 대관할 개인이나 단체는 익산예술의전당 홈페이지에 공지된 대관 가능한 날짜를 확인한 후 신청하면 된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전체 객석을 오픈할 수 없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라 공연장 운영 상황이 변동될 수 있어 대관할 시 이를 동의하는 조건으로 신청해야 한다.

접수는 이메일이나 직접 방문 접수로 가능하며 정기대관을 희망하는 예술단체나 개인은 익산예술의전당 홈페이지(arts.iksan.go.kr)에서 대관신청서, 공연계획서 등 관련 서식을 내려받아 제출하면 된다.

방문접수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이메일은 접수 마감일 마감 시간(29일 오후 6시) 도착 분까지만 유효하다. 접수된 서류는 심사를 거쳐 시설사용에 대한 승인이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익산예술의전당 홈페이지(arts.iksan.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하거나 전화(063-859-3316)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장양원 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국립전주박물관, 온라인 규방공예 진행

모시향낭 만들기·조각 브로치 만들기 영상 제공

국립전주박물관(관장 홍진근)은 4월 문화가 있는 날 비대면 행사로 '온라인 규방공예'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초급 과정인 '모시향낭 만들기'와 심화 과정인 '조각 브로치 만들기'로 구성한 이번 온라인 강연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전주박물관 홈페이지 및 유튜브에서 동영상으로 게시한다.

동영상 관람은 전주박물관 홈페이지(jeonju.museum.go.kr)의 행사 카테고리인 '온라인 문화체험실'에서 가능하며, 유튜브의 경우 '국립전주박물관'을 검색하면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영상 게시와 함께 초급 '모시향낭 만들기'는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국립전주박물관 홈페이지(jeonju.museum.go.kr)에서 선착순 40명을 예약 받아 체험키트를 무료로 제공한다.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를 활용해 집에서도 손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마련한 이번 온라인 체험 강연은 전통 바느질 기법인 감침질을 이용해 만들 수 있는 규방 소품공예를 배운다.

초급 '모시향낭 만들기'는 여름원단인 모시에 감침질해 주머니를 만든 후 포푸리향을 채워 만들고, 심화 '조각 브로치 만들기'는 조각보 공예로서 조각된 천을 바느질로 엮어 만든다.

/장은성 기자